

이재명 “尹 시정연설, 국정기조 전환 없는 무책임 변명 뿐”

민주당 최고위... “R&D 예산 삭감 설명 없고 의대 정원 확대 발언 실중” “민생 대책 없이 재정 건정성만 집착... 국민 상대로 빈 말 심각한 문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국정기조 전환은 없었고, 변명에(다가), 그리고 우리가 요구한 전환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국민이 옳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제 시정연설에 대해선 기대가 상당히 많았는데 안타깝게도 매우 실망스러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재정 건정성에 대한 집착만 더 강해진 것 같다”며 “민생위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없이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대해 합리적 설명보다는 무책임한 변명만 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사 월급을 올린다고 하셨는데 예산으로 보면 병사를 복지에 예산을 1857억원이나 삭감하겠다고 한다”며 “국민들을 원숭이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다. 이것을 ‘조삼모사’(朝三暮四)라고 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또 “의사 정원 확대 이야기는 어디로 갔느냐”라며 “정부가 국정을 하는 데 있어 무슨 국

정 과제를 던졌다가 반응을 빚으며 슬그머니 철회하고, 또 이것 하나 던졌다가 반응이 없으면 없애고 이런 식으로 국정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조삼모사보다 더 나쁜 것이 빈 음식 접시를 내는 것 아닌가”라며 “국민을 상대로 똑같은 말로 장난친 것도 문제지만 빈말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정부가 민생 경제를 포기해도 최대한 민생 회복과 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선 “대책으로 전세 사기범을 때려잡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라며 “피해자 구제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가 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해 합의하며 6개월마다 입법을 보완하자고 분명히 약속했다”며 “그런데 6개월이 다 되도록 여당이 아무런 보완 입법 의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민 삶을 책임지는 여당은 약속대로 서둘러 개정을 내고 신속히 보완 입법에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오광록 기자 kroh@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경제토크 - 위기 속 한국경제의 미래를 말하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총선거획단 출범 ‘선거 모드’ 돌입

조정식 단장 등 13명 구성

더불어민주당이 1일 제22대 총선거획단을 꾸렸지만 비주류를 중심으로 사실상 친명(친이재명) 일색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권철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가 조정식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13명의 총선거획단 구성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김병기 수석사무총장, 이재정 전국여성위원장, 전용우 전국청년위원

장, 비례대표 신현영 의원 등 현역 의원이 포함됐다. 한 위원장이 간사를 맡는다.

원의 인사로는 최택용 부산 기장군 지역위원장, 박영훈 청년미래연석회의 부의장, 장현주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장윤미 법무법인 메타 변호사 등이 합류했다.

여성은 4명이며, 청년 몫으로 5명(여성 포함)이 활동한다.

총선거획단 위원 13명 중 비명(비이재명)계라 할 만한 위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정태호 민주연구원장과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정도다. 특히 공천 작업의 핵심 역할을 하는 조정식 사

무총장의 경우 비명계의 지속적인 사퇴 요구에도 불구하고 예상대로 총선거획단 단장을 맡게 됐다.

비명계는 총선거획단 인선이 결국 비주류를 속이내는 ‘자객 공천’을 예고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원욱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현역 의원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사무총장은 지대한 역할을 하는데, 정성 평가 비중이 높다”며 “(자객 공천) 우려를 불식하려면 적어도 중립지대 의원이 사무총장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예산심사서 지역화폐 확대 편성하겠다”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노조·소상공인단체와 이용확대 협약

더불어민주당은 1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삭감된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예산 심사 과정에서 확대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당 민생연석회의는 이날 오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소상공인 단체들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역화폐 이용 확대 1차 상생 협약식’을 개최했다.

민생연석회의 상임 부의장인 전혜숙 의원은 “어

려운 시기일수록 연대하고 상생해야 한다”며 “지역 중소기업과 노동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지역화폐야말로 골목상권을 지키고, 소비자인 노동자의 주머니를 든든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경기 부양 효과가 큰 지역화폐 사업을 꼭 활성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예산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국민이 원하는 수준으로 확대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자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주민 의원은 “지역화폐는 소상공인들에게 숨겨진 기회가 돼준 것 같다”며 “예산을 지키고 늘리는 건 국회의 몫인 만큼, 국회가 국회의 할 일을 제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주 의원은 “고물가·고금리에 지역경제를 살리는 가장 확실하고 명확하게 검증된 정책이 바로 지역화폐”라며 “전 정권의 흔적을 지우고, 민생을 내팽개치려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가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전국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김경배 공동대표는 “지역화폐를 부활시키고, 지역 골목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정치인들이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권일 기자 cki@

민주 “尹, 민생 해결위해 野 대표 만나야”

더불어민주당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 민생에 집중한다면 영수 회담이든 여·야·정 회담이든 야당 대표와 허심탄회하게 정국을 논할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전날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만난 것과 관련해 “비록 짧은 만남이었지만 두 분의 만남이 실질적인 여야의 소통과 협력, 정치의 복원으로 이어질기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또 “대통령과 여야가 한목소리로 민생 우선순위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민생 문제 해

결을 위해 진정성 있고 실질적인 대화와 협력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국정 운영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대통령과 여당에 있으며, 정책의 최우선 목표인 물가와 민생 안정은 야당을 비롯한 국회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 누구도 공감하지 못하는 국정 성과를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소통의 물꼬를 트기 바란다”며 “윤 대통령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총선 브리핑

초중고생·학부모 대상 진로 토크 콘서트

정준호 변호사 강연

정준호 변호사가 지난 31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시 초·중·고등학생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상생의 진로교육’ 주제로 빛고를 꿈드림(DREAM) 토크 콘서트를 가졌다.

정 변호사는 이날 행사에서 진로와 직업 선택의 기준으로 ▲생계유지 가능한 선택 ▲선택된 직업에서 중간 정도 할 수 있는 역량 유지 ▲나를 담을 수 있는 그릇 만들기 세가지를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부모님과 학생들이 진로와 직업 선택으로 충돌할 때 남의 의견으로 판단하지 말고



해당 직종 종사자 의견을 직접 듣고 판단을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며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부모님과 함께 진짜 원하는 것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광주시교육청과 교육사회적기업 Point(주)가 주최하고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 가수 윤덕원 등이 강연자로 참여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심의필 제230620-중-154988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개원21년의 첨단우리병원에서
건강과 행복을 챙기세요!

대상포진 폐렴백신 영양수액

백신 냉장고 도입

첨단우리병원 전화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